

'좋은 책'을 위한 출판인의 애정

송은범 도서출판 정민 사장

얼마전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위치한 서점의 숫자보다도 출판사의 수가 많다고 한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은 자본주의 입장에서야 떨떠름한 현상이겠으나 수요자 즉,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나쁠 것도 없는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양이 질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문화의 수준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를 칠 일만도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은 출판업이 영세한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잘만 하면 단기간내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는 잇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막상 출판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처럼 그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통절히 실감케 되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출판업이 사정상 여러가지 불리한 환경(유통구조의 문제, 독자들의 기호 등등)으로 인해 마진에서 뿐만 아니라 보람의 차원에서도 별무소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애초의 동기인 문화사업인의 긍지를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제 팔리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아무리 내용이 알차고 무게가 실려 있다 해도 이것이

상업성과 결부되지 않으면 출판하는 데 인색한 현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출판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현상이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책 한권 값이 커피 두잔 값, 밥 한끼 값에 맞먹는 사정에다가 광고비 부담, 막대한 제작비, 서점 마진율 등을 제하고 나면 웬만치 팔려가지고는 수익은 커녕 손해만 보기 십상인 것이다. 뿐인가, 대개의 독자들은 잘못 길들여져 지극히 선정적인 경향의 책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거기에 대재벌조차 문어발식으로 손길을 뻗쳐 영세출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됐는가.

단지 경제적 이득만을 쟁기기 위해서라면 굳이 출판업에 목을 매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판인은 비록 불리한 여건과 사정에 놓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에 기초하여 '좋은 책' 만들기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당당한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독자들은 오염된 문화병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위기에 출판인과 종사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판저널

통권 제 72호/1990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奎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羲天 崔炳天 金允淳 金啟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식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의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金炳翼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吳 |
| 宋相庸 | 申福龍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瑋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助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秉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鎮弘 | 曹大鉉 | 崔鍾庫 | 韓相震 |
| 韓勝憲 | 許順烈 | 洪延善 | 黃鉉產 |
- (가나다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1월 1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110-190·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4호(12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춘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韓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의 고전적 명저로 꼽히는 책들 가운데 역사분야와 관련있는 것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에 든 '가'항의 책이름과 '나'항의 해제를 맞는 것끼리 연결하여 주십시오.

가. 책이름

- ① 東史綱目
- ② 燃藜室記述
- ③ 海東繹史
- ④ 韓國痛史

나. 해제

① 조선 정조·순조 연간의 실학자 한치윤이 저술한 백과사전적 역사서로, 한치윤이 저술한 것은 본편 70권이고 속편 15권은 그의 조카 한진서가 지었다.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관찬사서들이 드러내던 관료적 사관을 탈피, 실증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500여종이 넘는 중국·일본측 자료의 정확한 인용과 출처의 철저한 명시로 잘 알려져 있다.

② 조선 고종 즉위년인 1864년에서 1911년의 105인사건에 이르는 47년간의 한국최근세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박은식의 저술로 흔히 「민족사학의 남상」으로 일컬어진다. 고종 즉위년 이전까지의 역사는 그 대강만을 간결하게 다루었는데, 국사상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

이나 연결에 그치지 않는 뚜렷한 민족사관 아래, 국권상실과정에 있어서의 깊은 반성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③ 단군 및 기자조선에서 고려말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를 엄밀한 주자학적 사관에 의해 정리한 안정복의 저술. 종래의 사서에서 보이는 기전체나 편년체적 서술을 지양,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간주려 정리한 다음 그에 대한 저자 자신의 설명을 다는 해설을 붙임으로써 근대적 역사학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④ 근세조선의 야사로서 그 체제가 가장 잘 갖추어지고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극익의 저술. "여러 사람의 야사를 널리 채집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략 기사본말체를 모방하여 보고 읽은 것에 따라서 분류하여 기술하여서 이후에라도 계속하여 더 써 넣는데 편리하게 하였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저자 이극익의 설명.

제70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0호(10월 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51통, 이중 정답자는 27통이었습니다.

당첨자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 ①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날

문제2

- ③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당첨자

이성진(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3 남현빌딩 4층 서울지역 SFC) 유창희(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요당리 146번지)

송문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청실 APT 6-903)

김현수(대구직할시 수성구 상동 62-7 19/3)

강희숙(서울시 구로구 시흥 4동 812-12)